

후도도

오쿠노인(奥之院) 입구 가까이에 있는, 약간 높은 돌 대좌 위에 지어진 작은 불당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간소하지만 매우 중요한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대명왕 중 하나인 부동명왕의 상입니다. 부동명왕의 분노하는 모습과 드러나 있는 어금니는 무한한 자비를 품고 있다는 명성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줍니다. 부동명왕은 일본의 밀교인 천태종(天臺宗)과 진언종(眞言宗)에서 깊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업을 끊어내고 부정함을 모두 불태움으로써 신자를 지키는 강한 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명왕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에 줄을 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의 중요한 역할은 부처의 전사로서 업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동명왕은 종종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 불꽃에 감싸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엔교지 절은 사원의 수호신인 오토텐, 와카텐과 관련하여 부동명왕과 특히 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토텐은 부동명왕의 화신이라고 생각되며, 와카텐과 함께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매년 1월 18일의 행사로도 유명합니다. 오토텐과 와카텐은 후도도에 인접한 작은 신사인 고후도(護法堂)에 모셔져 있습니다.

후도도는 1678년에 지어졌는데 1967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10년 뒤 원래의 재료 일부를 사용하여 재건되었습니다.